

싱가포르의 '메가스트럭처' 건축물 보존에 대한 고민

옥승철
옥스퍼드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2019년 싱가포르에서는 '메가스트럭처' 건축물 보존 여부가 건축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현재 소유주들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개발하기 위해 소유권을 팔려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많은 건축가와 시민단체는 이들 건물에 대한 보존을 정부에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00년 전 식민지배 시절의 역사적 건축물들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법(Conservation law)에 따라 잘 보존되고 있으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지어진 포스트모던풍의 메가스트럭처 건축물은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스트럭처 건축물의 특징

메가스트럭처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유행한 거대한 건축물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운상가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의 메가스트럭처는 기능주의의 원점 복귀와 거친 조형을 주장하는 단순 재료인 콘크리트나 철제 블록을 사용하는 브루탈리즘(Brutalism) 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공간끼리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와 건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물도 변화한다는 메타볼리즘(Metabolism) 운동의 영향도 받았다. 그 대표적 건물이 피플스 파크 콤플렉스(People's Park Complex)와 골든 마일 콤플렉스(Golden Mile Complex)이다.

1970년대에 지어진 두 건물은 '메가스트럭처의 교과서'로 불리며, 싱가포르 고도성장기의 경제적 번영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성공적 독립을 상징하였다. 1970년대 당시에는 낮은 길거리 상점 건물밖에 없던 싱가포르에 대규모 쇼핑



골든 마일 콤플렉스

©Shutterstock

센터·오피스·주거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거대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건물의 등장은 싱가포르인들의 자부심이었다.

또 이들 건물이 지어질 때 싱가포르의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당시 싱가포르의 좁은 도시의 대안적 결과물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결합하여 ‘고밀도’, ‘수직’, ‘자급자족식’으로 설계하였다. 건물 안에는 상점·키오스크·커피숍·은행·백화점·슈퍼마켓·음식점 등이 있고, 다른 층에는 사무실·스튜디오·주거공간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만나서 소통하고 레크리에이션이나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정원 등이 있다.

메가스트럭처 건축물과 가치에 대한 찬반 논란

당시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유명 건축가 마키 후미히코(槇文彦)는 “많은 건축가가 이상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수립한 메타볼리스트와 브루탈리즘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냈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두 건물에 대해 “사람들이 주거하고, 일하고, 쇼핑하며 즐길 수 있는 빌딩의 최고 예시이자 대표적 건축물”이라고 하였으며 “대담한 의도, 독특한 형태, 복잡한 공간은 그것 자체로 중요하고 독창적인 건축의 예술 작품”이라고 전하였다. 네덜란드 건축가인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두 건물에 대해 “랜드마크가 될 의도가 없었지만 랜드마크가 된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에 대한 보존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보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메가스트럭처 특성상 크기가 매우 거대하며 브루탈리즘의 영향을 받아 외벽이 단순한 콘크리트와 철재로 건축된 탓에 노후화가 진행된 지금, 미관상 거대한 낡은 건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져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두 건물은 기존의 도시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기존의 콘텍스트에 배타적이며, 도시와 공존하지 않고 경쟁을 하는 낡고 오래된 흉물이라는 건축학적 비판이 나온다. 메가스트럭처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이들 건물이 못생기고 낡은 건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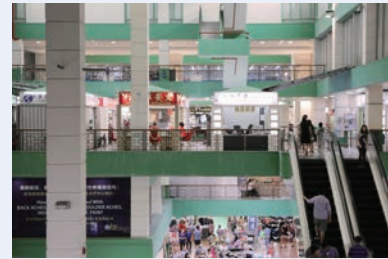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메가스트럭처를 상징하는 두 건물은 현재에도 싱가포르에서 보존에 대한 찬반 토론이 뜨겁다. 두 건물이 싱가포르의 보존법에 포함이 되어 역사적 자산이라

©Shutterstock



피플스 파크
컴플렉스

©Spatial Anatomy



피플스 파크
컴플렉스 내부

는 평가를 받고 보존되려면, 먼저 두 건물이 어떠한 특징과 보존 가치가 있는지부터 정의되어야 하기에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두 건축물은 시장논리에 보존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 이 건축물의 개별 소유주 수백 명은 재개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재개발 시공사에 팔려 한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가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손을 놓고 시장논리로 바라보고 있던 싱가포르 정부가 보존을 위해 적극 움직이려 한다는 평가가 있다.

싱가포르의 건축사사무소 Spatial Anatomy의 대표 캘빈 차아(Calvin Chua)는 “두 건물은 싱가포르 같은 열대 지방이자 밀도 높은 좁은 도시에 적응할 수 있는 역사적 실험이 이뤄진 건축물이기에 반드시 보존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러한 역사적 건물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참고문헌

<https://www.singaporeheritage.org/wp-content/uploads/2018/08/SHS-Position-Paper-Too-Young-To-Die-Aug-2018.pdf>